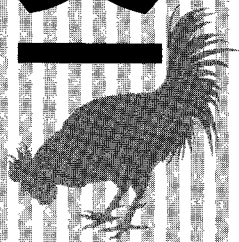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일본

채란양계장에 살모넬라 대책지침 배포

일본양계협회는 살모넬라에 대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살모넬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살모넬라 예방에 대한 지침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지난 9월에 채란계 농장에 배포하였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지난 3년동안 일본인들의 평균 살모넬라 감염건수의 5배가 넘는 1,770명이 올초 3개월 동안 발생하여 살모넬라에 의한 감염이 급속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여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첫째 살모넬라의 침입방지로 청정한 병아리 도입, 청정한 사료급여, 살모넬라의 매개동물 방지, 사람에게 의한 병원균 전파방지가 주 내용으로 실려있으며, 둘째로 농장의 위생관리로 계사시설의 청소 및 소독철저, 폐계처리 등 위생적인 관리, 강제환우 금지, 백신의 효과적인 활용 등이 골자로 되어 있다. 또한 셋째로 위생적인 집란 및 계란의 취급, 마지막으로 살모넬라의 철저한 검사에 의한 계군의 완벽한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鶏鳴新聞)

사우디아라비아

닭고기 체인사업 세계진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대의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는 Sakieh씨 일가가 설립한 Al Tazaj회사가 패스트 푸드 시장에 발을 넓혀가고 있다. 이 회사는 1991년 사우디의 제2수도인 메카에 체인점을 개설한 이후 18개월만에 레바논 및 바레인을 포함해 10개의 중동국가에 체인점을 개설하는 급신장을 보여왔고 금년내에 아시아를 공략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첫 번째 지사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Al Tazaj는 아랍어로 '신선함'을 의미하는 말로 이에 걸맞게 타 경쟁사들과 차별화를 두기위해 신선함을 강조하며 적외선 구워만든 닭고기 요리를 주 메뉴로 내놓고 있다. 지난 '97년에 미국 시카고에 개설한 체인점에서도 농장의 신선함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I)

## 멕시코

### 미국 닭고기 수입 금지조항 검토

멕시코 농림부에서는 청정닭고기 수입을 목적으로 앞으로 미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모든 닭고기는 질병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청정지역(disease free zone)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를 지정해 수입할 것을 발표하였다. 멕시코의 닭고기 연합회 회장인 플로렌티노씨에 의하면 지금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FTA)의 비관세장벽 협정에 따라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억제할 명분이 없었으나 이 제도를 명분화할 경우 멕시코내에 무절제하게 수입되던 것을 방지하여 질병유입을 방지함은 물론 수입억제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미국 생산자들과의 협상결과가 주목되고 있다.(PI)

## 영국

### 2005년 1인당 닭고기 32.7kg 소비예상

영국의 가금육 생산이 앞으로 7년 후인 2005년까지 성장은 지속될 것이나 예전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축산물관측위원회에서는 예견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2005년까지 닭고기 총 생산량이 192만톤으로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현재(28.5kg) 보다 16%가 성장한 32.7kg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는 것은 경제성장이 세계적인 추세와 어우러져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닭고기 시장도 침체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PI)

## 호주

### 제4차 아태가금위생협의회 개최

호주의 수의가금협회에서 주최하는 제4차 아태가금위생협의회가 오는 11월 22~27일 6일간에 걸쳐 뮌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가금의 영양과 질병분야의 내외부적인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해 아시아에서 12명의 저명한 강사진이 초청되어 이루어진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에 발표될 내용은 MD, IBD 예방과 청정가금생산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연구와 예방책, 영양학 문제, 안전한 닭고기 생산, 아태지역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문제해결 방안 등 이외에도 많은 주제로 폭넓게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http://www.avpa.cia.au>> 주소를 참조하면 된다.(PI)

## 헝가리

### 수컷 오리 출하 선호

헝가리에서는 금년 50만수의 오리가 생산될 예정이며 이는 오리의 주요 수입국인 프랑스에서 오리간(duck liver)의 소비가 줄면서 지난해 보다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따라 헝가리의 오리사양가들은 암컷보다 큰 간을 생산하는데 유리한 수컷오리 사육을 선호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쿼터 생산제를 채택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WP)